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 Vision	<h1>보 도 자 료</h1>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금융위원회	2010.7.14(수) 10:00부터 보도 가능 ※ 금융위원장 기조연설(본문포함은 같은 날 14:00부터 보도 가능)	금융위원회 정책개발팀

작성부서	미래기획위원회/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금융위원회 정책개발팀		
책 임 자	이원식 국장(2180-2104) 이스란 과장(2023-8330) 이윤수 팀장(2156-9851)	담 당 자	전요섭 과장(2180-2115) 최봉근 서기관(2023-8321) 송용민 사무관(2156-9862)
배 포 일	2010. 7. 14 (수)	배 포 부서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2023-7017)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2156-9542)

제 목 :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 세미나

<p>□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조선히텔에서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음</p>
<p>○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를 각각 다루었고</p>
<p>- 이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된 뜻 깊은 자리였음</p>
<p>○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p>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음

- 한편, 제2세션에서는 일자리정부로서의 사명을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부문의 다양한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우리에게 **고령화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어서 2060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기관**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글로벌 투자기관**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구조, 해외투자전략, 내부기금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upgrade)**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이 심화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금융분야 '파이' 확대와 전문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였음
- 그리고 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 이를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 고령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국민연금이므로,
 -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
-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과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러한 기금운용을 통해 기금의 국내시장의 지배력을 낮추는 한편, 장기적인 투자문화 형성 등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기조연설(14:00~14:10)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금융부문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

※ 금융위원장의 말씀요지 및 기조연설 전문은 7.14,14:00부터 보도가능

- 우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하며

-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금융정책방향으로서
 -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는 한편
 -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경영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함

□ 이날 고령화 대책을 논의한 제1세션의 토론에서는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보장 확립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 아울러 자산운용시장의 선진화 노력 등 금융의 역할을 점검 하였음

□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 금융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므로, 금융산업이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 정책금융기능과 금융의 선별기능을 통해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여 경제전체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붙임>

1.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오전]
2.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조연설 [오후]
3. 세미나 발제 주요내용 (요약)

<붙임1>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 세미나

개 회 사

2010. 7. 14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 승 준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준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위해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래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고령화와 일자리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중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오후 세션에서 고령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역할에 대하여 진동수 금융위원장께서 기초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II 고령화 사회와 금융의 역할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 진행속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터어키, 그 다음이 한국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금년에는 11.0%로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노령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 2000년 고령화사회(노령인구비율 7.2%), 2010년 노령인구비율 11.0%, 2018년 고령사회(14.3%), 2026년 초고령사회(20.8%)

고령화는 국가의 경제성장, 사회의 활력, 개인의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령화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안이(安易)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령화 대응은 여러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오늘은 금융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30년에 약 1,200만명(인구의 1/4)*에 달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노령인구(+65) : 2010년 536만명(11.0%), 2020년 770만명(15.6%),
<통계청> 2030년 1,181만명(24.3%), 2050년 1,616만명(38.2%)

현재 기금규모가 238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세계 4위 규모의 공적연금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ダイナミック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2043년 국민연금은 2,465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급속히 소진

따라서, 국민연금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글로벌 투자기관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투자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투자기관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해외투자전략, 내부기금관리 체계 등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upgrade)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기금규모에 비해 부족한 내부인력과 역량을 보완하는 한편, 선진 자산운용기관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연금자산이 확대됨으로써 자산운용시장이 확대되고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업계는 하루 빨리 높은 수준의 신뢰와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연금자산 운용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쳐주어야 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진출하여 수익원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III 미래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역할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이명박정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OECD의 고용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5월 계절조정실업률이 3.2%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6.4%로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 (통계청)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 10.0%로 사상 최고를 기록

그리고 금융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이 심화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금융분야 '파이' 확대와 전문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각 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구성비('06년 기준, 출처:현대경제연구원)
(미국) 64%, (프랑스) 43%, (캐나다) 39%, (일본) 35%, (한국) 20% ['09년 23%]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서 기회일 것입니다.

국제 금융질서에 동참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상황에 맞는 금융제도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010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16강에 진출했습니다만, 한국 금융은 이제 겨우 힘겹게 본선 진출을 바라보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을 하루 빨리 16강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가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해외파 선수들과 같은 세계수준의 축구인재를 양성한 것처럼 한국 금융도 시야(視野)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업계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금융전문직을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 일자리도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선별기능을 발휘하여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즉, 창조확산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IV 마무리 말씀

오늘 발표 주제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고 광범위한데 비하여 준비된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최대 과제인 고령화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대책' 세미나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 승 준

<붙임2>

'10. 7.14(수), 14:00부터
보도가능

미래기획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공동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금융의 역할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2010. 7. 14 (수) 14:00 (10분)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인사 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학계·금융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아울러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
하면서,
 -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부문 역할과 과제

-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들은 고용되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When men are employed, they are best contented."

- 200년전이나 지금이나 일자리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우리 정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최고의 서민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여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없는 단기 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일자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행히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 청년층, 여성, 고령층 등 취업애로 계층의 어려움이 남아 있고 인력수급 불일치나 노동시장 경직성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괄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고용시장의 안정과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해 희망근로 등의 재정사업과 세제 지원 등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 금융부문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기업과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현재 금융공기업은 신용평가항목에 기업의 고용창출실적을 반영해 대출이나 보증시 우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창업기업,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정부가 특별자금 및 특별보증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상장요건 완화,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新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금융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금융산업 자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 특성상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금융산업은 전문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임금수준도 비교적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먼저, 지난 2월 3개 연구원이 고심 끝에 마련한 금융선진화 비전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산운용업이나 회계·법률 서비스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시장분석과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역할과 과제

- 내외귀빈 여러분!
- 앞서 오전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출산율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 특히,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가 세계 역사상 가장 빨랐던 만큼이나 고령화 추세 역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는 소비·저축 등 총수요를 위축시키고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게다가 금번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기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고령화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당장의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향후 5년간의 정부 대응계획을 총정리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 한편,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우리 금융시장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령화로 인해 금융서비스 수요기반과 투자성향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금융부문도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 속에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의 활성화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연금소득의 소득대체 비율이 낮은 실정에서 사적연금의 보완 역할도 미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제도와 '94년 도입된 이후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는 개인 연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한편, 고령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바로 주택연금제도(reverse mortgage)가 아닐까 합니다.
-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의 보유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 비중은 낮으면서 부동산 비중은 매우 높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는 3단계 연금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취급 금융회사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의 저출산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금융권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 여성들의 취업과 출산을 장려하는 양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거나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금융상품 개발도 저출산 해소뿐만 아니라 금융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IV.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금융회사 경영진들께서도 많이 와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미나에 참석 해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 남은 시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현안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3>

세미나 발제 주요내용 (요약)

제1세션

고령화 사회와 금융의 역할

1. 고령화시대의 금융의 역할

-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장수화의 추세에 따라 고령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인구고령화가 심각.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 신생아 수도 445,000명으로 감소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79.6세

○ 잠재성장율이 저하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임. 또한 저축률, 자산수요 및 가격, 경상수지 및 국제간 자본이동 등의 측면에서 변화도 예상

□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길어진 퇴직기간을 고려할 때 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창출이 절실히 필요

○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도입 후 20년이 넘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 연금소득대체율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는 도입 5년이 지났지만, 가입비율이 5인 사업장 근로자의 40%를 넘었을 뿐이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

□ 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 특히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이 필요. 자산운용 규제완화와 위험관리 등 필요조치를 꾸준히 추진해야 함

- 연금을 통해 충분한 퇴직자산을 쌓기 위해서 오랜 적립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시기에 가까운 근로자들은 연금 자산을 쌓을 시간적 여유가 없음

- 가계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인 현실을 고려할 노령층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상품개발이 필요

- 또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연금화 또는 분할수급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2. 고령화시대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 백화종 국민연금 연구원장 -

-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 5월말 기준 292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43년 2,465조 원까지 적립된 후 급속히 소진될 전망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 제도로부터 파생된 기금, 기금의 거대규모, 공공성 추구, 초장기 투자자라는 측면에서 사업성 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과는 성격과 운용여건이 상이

- 향후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 ALM을 통한 제도와 기금운용의 연계 강화
 -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한 국면별 장기 기금운용방향 수립

 - SRI 등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위험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3.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금융발전

-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 -

- 가장 두터운 인구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은퇴생활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를 대비할 필요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를 하기에 많이 부족하며 퇴직연금 강화가 시급

-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
 -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가교 역할을 하고, 부족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강화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함

-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 방안
 - ① 근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 ②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방안 마련
 - ③ 퇴직연금의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의 공조
 - ④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의 인센티브 강화
 - ⑤ 적립금 조기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⑥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으로의 원활한 전환 유도
 - ⑦ 퇴직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제도라는 인식 정착의 노력
 - ⑧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토록 유도

- 중장기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필요

4. 고령화시대의 주택금융 활용방안

-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서민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이 저하되고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고정금리 장기주택금융의 필요성이 증가

-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자 부양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자의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생계비 조달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50대 이후 소득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우리나라 고령자의 소득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빈곤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2006년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은 79.8%로서 매우 높은 수준

- 주택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고령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임.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주택금융 활용방안으로는
 -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서민지원기능 확대, 서민층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모기지 보험의 도입,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저소득 고령자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등이 있음.

1. 금융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재술 딜로이트 한국총괄대표 -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한 관점의 정립이 급선무

- 즉, 금융산업이 단일 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산업 발전의 단계 전략을 추구 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의 지원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 국내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으로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

①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캐나다 TD Bank의 사례 : 일부 지점의 주말 영업을 통해 영업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주말서비스를 통해 고객 충성도 제고 및 방문고객에 대한 up & cross selling을 추진

② 금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위험관리 등 일부 핵심 역량 중심의 아웃소싱 사업을 통한 동북아 금융 solution provider 역할 수행 (예: Analytic 기반의 고객 분석 서비스, risk 서비스 등)을 통한 선택적 집중

- *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 Rock)사의 Black Rock solution판매의 사업모델

③ 국내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통한 expat(국외거주자)의 일자리 창출

- 동남아 진출을 통한 expat의 고용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해외 인력 및 교포 인력을 한국 기업과 연결하여 전체적인 한국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

④ 고령화 금융인력의 활용

- 국내 금융사의 퇴직 인력을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 파견을 통해 금융지식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고령 금융인력에 고용기회 확대
- 청소년 금융교육 및 다문화 가정 금융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고용 기회 확대
- 금융 채무불이행 자에 대한 1:1 멘토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기회 창출

□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전제 사항

- 금융산업에 대한 장기적 시각 정립, 유연한 고용 탄력성 확보, full capacity가 아닌 key capacity 확보 전략 및 국제적 금융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함

2. 정책금융 지원과 일자리 창출

- 유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

- 한국정책금융공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조원 공급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까지 정책금융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

- 이와 관련, 공사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를 분석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 정책금융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인 경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예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이 신용평가 과정에서 우대받고, 금리 및 대출기간도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이같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사는 10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공급함으로써 2015년까지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달성할 계획

3. 금융국제화와 Hub & Spoke 전략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외 금융여건이 재편되고 있음
 - 국내금융시장의 포화상태에 따른 향후 국내금융의 양적·질적 발전과 실물부문의 동반자 역할을 위해 국제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이 과정에서 금융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기대효과가 예상
-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해외자본 및 해외 금융회사의 유치를 통한 국내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과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해외진출을 통한 금융국제화 정책 방향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Hub & Spoke 전략」이 요구됨
 - 금융중심지 정책은 금융중심지간 연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
 - 금융회사의 글로벌화 전략은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선진시장에서의 글로벌화, 금융업종간 차별화된 전략 등을 감안한 3단계 추진전략이 필요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외환시장 안정성, 국내자산시장의 안정화, 글로벌 투자역량 및 해외자산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과정에서 향후 자산운용과 파생상품 취급 전문인력 수요의 증대, 기획·조사·홍보, 네트워크관리, 리스크관리, IT, 법률, 회계 등 국내금융 인프라 관련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유발
 - 이에 대비하여 국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체제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직군제 도입 및 성과주의 보상 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 금융인력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